



오교울  
전북도지회장



박순흠  
경북도지회장

# 낙농생산기반 회복, 원유가현실화가 급선무

- 전북·경북도지회 목장경영  
안정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

전국적으로 목장경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의 원유가 현실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협회 전북도지회(지회장 오교울)와 경북도지회(지회장 박순흠)는 지난 3월 18일 각각 도지회 사무실 근처 참숯갈비마을과 경산농업기술센터 내 품질평가원 2층 회의실에서 도지회 임원 및 회원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농식품부와 진흥회, 유가협회에 원유가 현실화를 비롯, 목장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두 지회는 공통적으로 최근 우유생산감소로 인한 목장들마다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장기화 된 구제역 사태와 배합사료값, 조사료값, 유류대 등 제반경비의 증가로 국내 낙농산업의 생산기반 붕괴가 크게 우려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목장 원유가격의 현실화를 촉구한 것이다.

특히 경북도지회는 원유가현실화 요구에 정부와 유업체가 미온적일 경우 납유거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

**건의문**

- 원유가 현실화 및 안정적인 목장경영 안정대책 마련요청 -

낙농산업 발전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귀성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 다시금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과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우유 생산 감소와 수익성 악화, 경영축출 등이 계속되고, 또한 더 이상 계속되면 구제역이 광범위 되면서 우리 낙농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경영에 타격을 입으며, 낙농생산기반도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농가 및 목장사장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고 있고, 기쁨을 할 준비가 안된 상태이고 있어, 이러한 위기를 넘어 극복하여 이겨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낙농인들의 고통은 이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로 기다리는 대한민국 낙농이 통교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소백한 식량자원의 유류산업이 무너져 된다면 이는 낙농인민의 존재가 아닌 전 국민에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산북도 낙농인들은 위수권의 생존권 보장을 더불어 우리 낙농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귀회에 인원과 같이 목장경영 안정대책을 건의드리고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원유 현실화, 조사료, 배합사료  
나. 각종 다산정책 실시 : 선진국 수준으로 현재부 15급 기준 면허 (다산우(4산우) 장려금 지급)  
다. 방목지지 생산장려금 지원  
라. 국산 우유 품질  
마. 농가특별지원금(과당) 상환연장, 기타 목장경영 안정을 위한 국공 및 세제 지원

2011. 3. 18

(사)한국낙농우유협회 전라북도지회  
지 회 장 오 교 울

**즉각적인 원유가격 인상 건의**

1. 우리 축산업 발전과 구제역 종식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몇 년간 폭염,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과 모든 품가 인상으로 인해 우유 생산은 극저조 감소하고 농가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불이행된 구제역 방역으로 인해 우리 낙농산업은 크여림과 함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유가가 폭등하여 조사료, 조사료값, 유류대 등 모든 제반경비가 폭증하면서 농가 생존권이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매일이 혹독하고 낙농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가 현실화나 원유 투쟁보다 시급한 낙농현안이 다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유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은 더 할 말이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정인 낙농산업의 미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의 생계를 조곤이나마 보장해 달라 는 것입니다.
4. 이에 우리 경상북도지회 회원농가들은 조기에 원유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즉각적인 원유가격 현실화  
나. 정부와 유업체가 미온적일 경우, 납유거부 불사

2011. 3. 18

한국낙농우유협회 경상북도지회 회원일동  
(도지회장 박 순 흠, 053-856-4240/010-2512-1802)